



ECC 봉헌 및 창립 57주년 기념예배 보고

준비위원장 김문소 장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2003년 우리교회 창립 50주년 첫 회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교육관과 지역사회관 (Education & Community Center) 를 착공한 후, 2년 5개월 만인 2010년 9월 22일 입주허가서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아 오늘 2010년 11월 21일 오후 5시에 본교회 창립기념일인 추수감사절 주일에 ECC 봉헌 및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온 교인과 축하객 400여명이 함께 성대히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우리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날 예배의 Highlight로는 교육관의 주인공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찬양 모습이 담긴 예배중 동영상과 생방송 중계가 있었습니다. ECC에서 Sunflower Children's Group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간들과 Youth Group의 예배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교회의 자랑인 찬양대, 특히 1부와 2부 찬양대가 함께 한KCB 연합 찬양대에서 입례송 “우리교회 (There's A Church in the Village)” 와, 찬양곡 “축복” 을 변화경 장로의 지휘와 손민수 교우의 반주로 정말 은혜스럽게 불러 온 회중도 감격적으로 ‘아멘’ 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보스톤 노회총무인 Rev. Wayne Parrish 목사님의 예배의 부름이 있었고, 다 함께 첫회년 신앙고백을 교독한 후, 뉴잉글랜드 한인교회 협의회장이신 김학수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성경봉독은 베다니 장로교회 Catherine Ham 장로(마태복음 12장:38-50절)와 본교회 부부청년부 새 회장 정광근 집사(에배소서 2장 1-10절) 두 분께서 해주셨고, 설교는 “신앙과 공동체 (Faith and Community)” 로 보스톤 노회원이며 하버드 신학대학 원로교수인 Dr. Rev. Preston Williams 목사님이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Pg 8에 계속)



12월호 차례

- ❖ ECC 봉헌 및 창립 57주년 기념예배 보고
- ❖ 담임목사 메시지
- ❖ 당회보고
- ❖ ECC 건축 프로젝트 최종 보고
- ❖ ECC OPEN HOUSE
- ❖ ECC 봉헌예배 설교
- ❖ 웨마의 밤
- ❖ 9월 웨마의 밤 <ECC Open House> 예배때 드린 감사의 말씀
- ❖ 안수집사 감사
- ❖ 집사회
- ❖ 남선교회
- ❖ 여선교회
- ❖ Sunflower Sunday School
- ❖ 교우동맹
- ❖ 광고
- ❖ 행사예고
- ❖ KCB 갤러리



“기다렸던 사람들”

이영길 담임 목사

지난 11월18일에 우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ECC Open House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몇명이나 오실까 생각하면서 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이날이 Brookline town의 First Light Festival이 열리는 날이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오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Open House를 기다렸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또 다른 작품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ECC건물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동안의 수고가 더 한층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기대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ECC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선사하십시오.

2년반 동안의 긴 공사, 또한 고품이 흐르는 타운에 우뚝 선 현대관 건물,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어 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우리 교회를 둘러 보면서 기다림의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듯 보였습니다. Children’s Chapel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에 잠시 심취하였고, Courtyard 에서 작은 공간도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느끼며 감탄해 하였고, Youth group room 에서 한민족의 문화를 맛보았고, Community Hall에서 현대예술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보러 왔다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 예술의 행진을 맛보았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1. Certificate of Occupancy를 9월 22 일에 Town of Brookline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 교회 주변의 조경공사가 김길람 장로님과 신광섭 집사님의 수고로 잘 되었습니다.
3. ECC Open House를 Brookline 1st Light Festival이 있는 11월 18일 (목) 오후 5~8시에 실시합니다.
4. ECC봉헌 및 창립 57주년 기념예배를 11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 Sunflower Sundayschool 과 Youth group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5. 이영길 목사님 휴가 (11/29~12/11)를 허락합니다.
6. 12월 18일 (토)에 제직회를 갖도록 합니다.
7. ECC공사중 교회 옆집 Mr. Yee 의 보험회사 Liberty Mutual Ins. Co. vs KCB 의 소송 사건이 이은주 집사의 수고로 10월 27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8. 활동교인 (-10월) 박창배/박지선, 이경희(박성민), 정근화, 이상운, 최학수 (6명) 세례교인(11월) 고미선

ECC 건축 프로젝트 최종 보고

ECC건축위원장 안승의 강로

ECC건축 위원회, 당회, 그리고 보스톤 한인교회 회중을 대표해서 ECC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제게 있어 매우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ECC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보스톤 한인교회의 창립 50주년 첫 희년을 맞이하는 보스톤 한인교회에 주시는 큰 축복과 특별한 은총을 예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약 \$4.2M.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획과 준비를 한 뒤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되기까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공헌과, 협력,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이 희망차고 쉽지 않은 ECC건축 프로젝트에 착수했을까? 이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 또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 우리 교회가 2000년도를 맞아 21세기에 들어섬에 따라, 우리 당회는 이영길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와 리더십 아래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과 장기 사명들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습니다.

- 1) 사도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
- 2) 교회의 회중들, 즉 3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 3)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그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러한 선교 사명들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 1) 지속적인 단기 해외선교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 (페루와 니카라과, 중국 연변)
- 2) 회중 3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또한 상호 세대간 프로그램의 강화 (월별 쉼마 기도의 밤)
- 3) 문화 행사들을 통해 우리의 지역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브루클라인 지역주민들을 위

한 한국 문화 축제)

- 4) 미래 선교를 염두에 두고 예배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ECC건축 프로젝트는 장기적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실제 건축만 놓고 본다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들었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당신의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건축가 - Somerville의 Brian Healy 건축회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Brian Healy는 건축상 수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ECC건물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뉴욕의 Whitestone에 위치한 Christian General Contractor인 '강석 건축 회사' 를 보내 주셨습니다. 강석 건축 회사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에게 최상의,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건축 시행사인 보스톤에 위치한 Daedalus Projects, Inc.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ECC건물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g 3에서 계속)

ECC건축 프로젝트는 약 10,000스퀘어 피트의 면적에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활동 공간을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 공간은 아름다운 어린이 예배당과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중고등부 예배당과 하버드 스트리트 쪽으로 나 있어 다른 상점들과 마주하고 있는 보스톤 한인교회 공동체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건축을 끝내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교회 교우님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보스톤 한인교회의 교우들 및 보스톤 한인교회와 교우기간에 있는 개인, 단체들이 지난 7년간 \$2 백만을 헌납하였습니다. 보스톤 장로교는 우리가 PILP로부터 \$2백만의 건축 용자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었고, 미국 장로교와 the Gilchrist Fund 로부터 건축지원금 으로 \$100,000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와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브루클라

인 장로교회는 ECC건축을 위해 \$10만을 후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과 지지, 그리고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또한 보스톤 한인교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보스톤 한인교회의 여러 위원회들과 ECC의 세부 위원회들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섬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이 건축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건축 팀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헌신하며 섬겨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또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ECC OPEN HOUSE

김성연 장로



지난 11월 18일 목요일 저녁에는 새로 지은 ECC 건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Open House 가 있었습니다. 이번 Open House는 “Brookline 1st Light Festival” 이 열리는 시간과 같이 맞추어서 많은 동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CC건물을 돌아보는 tour외에도 우리 건축 전반에 관한 역사와 의미 그리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ECC건물을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교인들과 Brookline에 거주하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미술작품을 Community Center, Parlor, Lobby등에 전시하였습니다. 김희정, 오설리, 현종광, 정혜신, 김민경 등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지하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arts & crafts activities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스톤 한국학교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봉사하여 주셨습니다.

오후5시가 되자마자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의 동네 주민들이 Community Center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시된 Light art와 김희정 집사의 video art작품등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여기저기서 ECC 건물을 구경하며 이에 대해 평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볼 때는 몰랐던 방대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Brookline타운 관계자, 여러 nonprofit organization분들, 건축가, 음악 전공자 등등 우리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 우리 ECC건물을 자기들 행사를 위해 쓸 계획을 하고 있는 여러 주민들도 와서 주의깊게 우리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여러 공연도 열렸습니다. 5:30에는 Brookline 기타학교에서 나와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여 주었고, 6시에는 보스톤 한국학교 태권도 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어 7시부터는 Brookline Symphony Quartet팀이 나와서 바하의 quartet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연은 새로 지은 어린이 성전에서 열렸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날의 Open House 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주신 교인여러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30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여 주셨고, 이를 위해 여러 교인들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300명도 넘는 사람들의 발길을 ECC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성황리에 Open House 를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ECC 봉헌예배 설교 (2010년 11월 21일)

Rev. Dr. Preston Williams
(노회원, 아버드 신학대학 원로교수)

Faith and Community-신앙과 공동체

(에베소서 2:1-10; 마태복음 12: 38-50)

보스톤 한인교회의 교육관/커뮤니티 센터 봉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제 생애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 이 순간은 봉헌 예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기억들 중 한 부분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저는 예일 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쟁은 그 비극적인 참상에 더해 매우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내의 유명 인사이며 칭송받는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를 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아더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슬러,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군들을 38선 너머로 진출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를 파면한 것은 매우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포함하는 행동이었으며, 또한 한반도에 남과 북을 가르는 현재의 분단선을 결정짓는 행동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파면한 일은 1951년 4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에, 여러분은 보스톤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한국 문명의 시작이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전쟁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한반도, 한국인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 한국인에 관해서 1950년에나 되어서 알게 되었고, 여러분은 1953년에 저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또한 나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친근해지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가혹한 독재 아래에 놓여 있는 북한의 정치 체제가 종식되기를 바래 왔고, 또한 남한이 때로는 권위적이고 가혹한 정치 체제에 놓여 있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괄목할 만하게 민주화를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윤택해 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근래 서울에서 열렸던 G20회의는 바로 이러한 성취와 세계의 인식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땅으로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전쟁과 혼돈 속의 시기에 진행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교회 역사는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삶과 여러분의 새로운 고향인 미국에서의 삶의 연속성(continuity)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연속적인 관계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길 원하며, 또한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여러 교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매우 규모가 컸고, 활기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은 생동감이 넘쳤으며,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살아 숨쉬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으며,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저는 여러 대학들에서 강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그들의 헌신된 부모들이 얼마나 학습의 연마와 그들이 추구하는 꿈을 쫓아 밤 늦게까지 열심히 매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때로, 저는 한국의 부모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긴장하며 대학 벽면에 그들의 합격 여부가 공지되었는지를 보려고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은 집에서 대학의 합격 여부를 알리는 편지를 기다리고, 그 합격 여부는 당사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결과가 타인에게 공개되어 어쩌면 가족들이 그 결과를 알기도 전에 공동체가 먼저 합격 여부를 알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 동기의 정도는 더욱 높았었고, 때론 어떤 결과는 좀 더 수치감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문적 학습과 전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 행동가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군국주의적인 곳에서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ECC 건물에서 여러분은 활동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새로운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문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심과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에서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들은 2세기에 에베소서의 저자가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관찰하고 나아간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에베소인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죽은 것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당혹해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망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리고 혹은 미국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당면했던 여러 도전들로 인해 희미해짐을 경험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러한 근심과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좀 더 풍성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미국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새 삶을 개척하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 속에 주어진 시련과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지탱하였고, 새롭게 하였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새 사람과 새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또한 저로 하여금 한국인들의 삶의 한 일면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동질성이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타인을 품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라고 질문하신 뒤, 그의 손을 뻗어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듣고 이같이 반응하실 때에 예수님은 친족과 가족의 특별한 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필요들을 알고 계셨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신앙 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과 이웃들을 하나로 묶는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진 것이 라면, 여기 보스턴 한인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여러분들의 여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의 필요와, 한국인 아닌 사람들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보다 민감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한국인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상호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건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하면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예

배당과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과 육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을 관계와 사랑, 그리고 돌봄으로 채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더욱 강건하여 지며, 또한 여러분의 한국적인 문화를

지속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pg 1에서 계속)

ECC 건축보고는 한승희 장로가 Slide를 보여주며 잘 설명해 주셨고, 감사패 증정을 Brian Healey Architects, 지윤구 장로(강석건축회사), Richard Marks (Daedalus Projects. Inc.) 이렇게 세 분께 드렸으며, 축사는 Nancy Dalsy (Brookline Selectwoman), 김주석 보스톤 총영사, 김선배 목사(총회 한미 인종부 총무)께서, 인사와 광고는 김문소 장로(당회서기)가, 그리고 이어서 부르크라인 제일장로교회 Rev. Alison Moore 목사님의 축도로 역사적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들로 구성된 안내팀이 ECC Tour를 Guide하는 중, 마침 11월 18일(목)에 있었던 Brookline 1st Light Festival 때 준비되었던 그림들과 예술 작품이 Community Center와 복도 및 Parlor에 전시되어 있어서 훨씬 운치있는 ECC Tour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에스더/마리아 두 여선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Community Center와 Youth Group Rm.에서는 주로 외부순님들이, Fellowship Hall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맛있게 즐긴 후, 떠나시는 외부순님들에게는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교회의 모습과 ECC건축을 담은 DVD와 휴대용 Blanket 선물을 한 가정당 한개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여러 축하 편지와 축하 화환 및 축하 헌금이 여러 교회와 기관에서 왔습니다. 특히 축하 화환은 보스톤서부 장로교회,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올바니 한인장로교회, 맨체스 한인 크리스찬교회, 퀸지영생 장로교회, 뉴잉글랜드 한인교회협의회, 그린랜드연합 감리교회, 뉴잉글랜드 교역자협의회, 보스톤 장로교회, 강석건축, 연변회 망촌 이윤식회장, 보스톤 온누리교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북부 보스톤교회,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보스톤한인 감리교회, 총회 이은주 목사 등이 보내 왔습니다.

이날 특별히 ECC 건축에 Grant를 준 The Presbyterian Foundation (PCUSA), Gilchrist Fund와 Special Gift 를 해준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뉴저지찬양교회와 Presbyterian Investment & Loan Program에 우리교회를 지정하여 CD를 저축해준 보스톤노회, 퀸지영생장로교회, Bethany Presbyterian Church,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배 시작전부터 Parking 안내를 맡으신 집사님들, 접대와 기념품 분배를 맡으신 예배위원과 교인 위원들, 마음 줄이며 동영상 Live 방송을 깔끔하게 해주신 방송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분야를 맡아 잘 준비해주신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 교우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ECC 봉헌과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성대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립니다.



9월 쉼마의 밤

ECC 입당을 기념하면서 열린 9월의 쉼마의 밤은 ECC Open House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눈뒤, ECC 첫 입당을 축하하며, ECC 입구에 마련된 테이프cutting식을 가졌습니다.

감격과 벅찬 마음으로 모두 ECC 채플에 올라가 쉼마 찬양단 인도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을 부르며,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건축 진행사항과 비전을 담은 슬라이드쇼(유승오 집사 제작)를 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란 제목의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 환자분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ECC 오픈 하우스를 축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현악 4중주의 Eine Kleine Nachtmusik 1악장이 연주되고, 조유미 집사님의 ‘저녁 기도’, 독창과 현악 4중주와 함께

한 ‘거룩한 성’ 독창이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ECC 채플에서 처음 갖은 쉼마의 밤에 모든 참석한 교우님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던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쉼마의 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가진 11월 쉼마의 밤에는 장로님들이 구워오신 터키딜로 준비된 특별 만찬과 함께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최현구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쉼마 찬양단의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을 드렸고, 남선교회의 특별 찬양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날 남선교회는 ‘할 수 있다’란 제목의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셔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최정열 집사님 가정의 간략한 간증과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르호봇의 우물’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쉼마의 밤에는 처음으로 병환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못나오고 계신 환자분들을 비디오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복 중이신 신영각 집사님께서 교우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동영상과 함께 보며 인사를 나누었고, 또한 환자분들과 가족,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CC Open House>예배때 드린 감사의 말씀

먼저 교회건축에 관련된 간단한 연혁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3년에 창립된 보스톤한인교회가 처음 14년간 여러 교회당을 빌려 전전하다가,

1. 1967년에 이곳 미국장로교 Brookline 제일장로교회당에서 현재까지 예배드리고 있으며,
2. 1985년까지 우리교회는 초교파교회이었는데, 당시 홍근수 담임목사님의 주도로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 23번째 교회로 가입하였고
3. 1997년에는 교회당건물 소유권을 우리 교회가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4. 2003년 본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Education & Community Center (교육 및 지역사회관) 건축 및 교회건물을 보수기로 하여
5. 2006년에는 기존교회건물 보수가 김세철 장로의 수고로 본당에 Air-conditioner을 설치, 본당 뒤에 Stain glass와 Window도 새로 설치하고 Steeple에 새 Window 와 누수공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2006년에 Brian Healey Architects를 선정하여 ECC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 2007년 경쟁입찰결과 뉴욕의 강석 건축이 선정되어 2007년 11월 14일에 건축기간 12개월과 건축비 270만불로 계약, 그 재원을 일부를 충당키 위해 미국장로교 산하 Presbyterian Investment & Loan Program (PILP)에서 2007년 12월 1일에 160만불의 용자를 받은 바 있으나 증가되는 건축비를 고려하여 2008년에 PILP에 Loan을 40만불을 더 받아 총 200만불의 용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7. 2008년 4월 13일에 역사적인 Ground Breaking Ceremony (착공예배) 를 가진 이래,
8. 2010년 9월 22일, 시공 후 2년 5개월만에 드디어 Certificate of Occupancy 입주허가를 받아 오늘 쉼의 밤에 입당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1975년 10월 말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당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후,

2. 1997년 교회당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이영길 목사님과 한승희 장로님, 그리고 제가 1년간 보스톤노회와 보스톤제일장로교회대표들과 3차 협상하는 중에도 “이 교회당은 우리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2008년에는 ECC건축이 한참 진행되려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한승희 장로님을 은퇴시키어 ECC건축현장에 100%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ECC 건축을 위한 모금관계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첫 모금위원장에 한승희 장로님이 수고하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참여포함, 50만불 목표의 27만여불을 모금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김정선 장로님이 2년간 수고하였고,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뛰는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안태준 장로님이 5년간 봉사하여 거의 다 모금되었으나, 아직 10여만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5. 또한 ECC 용자액 200만불을 위해 김성빈 장로님과 김정선 장로님이 봉사하셨습니다. 총회 200만불에는 담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Rebate Program이 있어서 2009년 말 현재 보스톤노회에서 32만불과 퀸지영성장로교회에서 17만불 등 총 85만불이 우리 교회를 위해 지정 예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 200만불의 CD가 예금되면 1년에 1%, 즉 2만불이 우리 교회에 Rebate되어 오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멋진 설계를 해주신 Brian Healey Architects /건축을 해주신 강석건축회사/건축 감독을 잘 해주신 Daelalus Project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축, 모금, 용자, 관리위원회, 그외 여러 기관들과, 특히 ECC건축을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매일 이를 지켜봐주신 이영길 목사님과 윤경문 목사님, 한승희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안수집사 답사

우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부족한 저에게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의 자리에 이 부족한 죄인을 추천해 주시고 또 안수 받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공천위원회로부터 안수 집사에 추천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사실 두렵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허물과 나의 불충과 자만심과 교만한 때문에,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지 말라 하시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 하시는 듯 했습니다. ‘네가 부족하면 부족할 수록 그것은 내게 영광이다. 나가 전하라 네 삶을 바꾼 나를, 네 삶을 축복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안수 집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육받는 기간동안, 이번에 같이 안수를 받게 되는 우리 집사님들 얼굴, 한 얼굴, 한 얼굴 뵈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동역자이며 우리 신앙의 동지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 벅차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친구 손영권 집사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제 삶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미도록 보고 싶은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그 분들의 아들로 두 형제를 주셨고, 예수님을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주셨고, 이쁜 딸 민아도 허락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아름다운 보금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저에게 허락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정말 최고의 성도님들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연륜 지극하신 장로님들이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 그리고 힘차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보이지 않게 여러 분야에서 힘쓰고 일하시는 많은 제직님들을 뵈면서, 하나님께 저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친진난만하게 뛰노는 우리 아이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저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보실 때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정광근 집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고 말씀하시듯 저를 바라봐 주시는 두 분의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렇게 무력 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부족한 저와 이번에 안수 받은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 경험이 교회 활동에 대한 생각을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 한국 장로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첫 교회의 예배 형식에 익숙하여 졌습니다. 미국으로 와서도 여러해 동안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지키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직장일로 워싱턴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미국 장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집사직분도 받고 했지만, 젊은 목사님이 복음서가 중심의 찬양이 있는 새로운 형식의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새 형식의 예배가 가슴에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저는 예배의 형식은 많은 교인이 공감하는 형태이거나 많은 교인이 변해서 공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이 곳에 와서 익숙한 전통적인 예배를 은혜롭게 느끼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여행중에 타지의 한 교회에서 찬양으로 넘치는 열린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옛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예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저에게 많은 믿음의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목사님의 말씀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날 저에게 믿음의 행동원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뜻을 어겨가며 동성연애자들의 문제를, 미국의 노예제도와 같이 정의에 대한 문제로 보시고, 노회의 결정을 떠나 개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본인의 일에 열중이어서 그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곳의 교회 교인들의 활동을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교회여서, 모임이 자유롭고 교인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에는 모든 교인이 참여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교인들과 미국 각지에서 와서 몇 주 동안 본

인들의 트레일러에서 생활하며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중이어서 특별히 그런 봉사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난 후에도 교회가 작아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관리와 운영을 나누어서 해야했습니다.

우리교회는 모든 교인이 함께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사회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중심으로 집사회가 운영되어서 집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집사님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든 집사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집사회를 맡은 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가지로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준비와 소통의 미비로 제한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있지 않아 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참석하여 한 해의 일을 보고받고, 새로운 집사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도는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 집사회 풍물놀이팀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 요한일서 5:1
남선교회 창립총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부족한 제가 초대회장을 맡아 감당하면서 임기 동안 저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이같이 은혜가운데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미천한 저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회장단과 각 부서장님들,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고 찬사를 보내주신 많은 교우님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선교회는 선교, 구제, Hospitality 등을 목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동안 ECC 건축지연으로 많은 교우님들이 힘들어 하며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교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가족” 운동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맛있는 떡국과 푸짐한 상품을 겸비한 송구영신 율놀이 대회, 어머니 주일 찬양제 때 출전 팀 모두에게 상품을 드리고 상록기도 회원님들께 선물 증정 그리고 각 구역별 사진을 모아 온 교인들께 보여드리는 slide show,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며 미래의 남선교회 일원이 될 청년부와 연합예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며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 1년이었습니다. 율놀이 대회를 하며 즐거워 하는 모습, 상록기도회원님들의 선물받고 기뻐하시는 모습, Father's Day에 Boston Rescue Mission을 실시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Happy Father's Day란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과 봉사에 인색하신 교우님을 대할 때는 안타까웠으며,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동기 부여가 부족함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우님들께 바람이 있다면, 첫 뉘을 맞이한 남

선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안에 우리 모두는 한가족이므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바람이 있다면 제2의 희년이라는 장기 vision외에 단기 vision을 세워 온 교회가 그 목표를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하며, 정기적인 각 기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부부청년부, 청년부, 집사회...) 모임을 가져 이들과 함께 격려하며 서로 협조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57년 역사에 걸맞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 지난 11월 13일(토)에는 정기총회를 소예배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선출된 새로운 회장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방경남 집사 부회장: 이창호 집사
회계: 이문영 집사 서기: 김준구 집사

- Brookline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Can Food 및 생필품(칫솔, 치약, 비누 등)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까지 수집한 것을 St. Paul Church에 있는 Brookline food pantry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에스터 여선교회

박애리 집사



이번 한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에스터 여선교회의 회장직을 처음에는 거절을 못해 영겁결에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기간이나 나의 나이등을 생각해 볼 때 한번은 거쳐 지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바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가장 challenge적인 일 이었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보고 여러 여성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 회계, 서기 및 5개 부서의 부장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협박, 또는 조름이 가능한 회원들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의 반응은 언제든지 최대한 도와주시겠지만 임원은 하실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 자신의 이름을 걸면 따라오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회장직을 맡기로 할 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한 통화, 두 통화, 저녁 내내 전화를 했지만 거의 모든 전화가 예의바른 상냥한 거절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전화와 부탁들을 계속 하느니 제가 그냥 모든 부서일들을 다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쉬운 부탁보다는 힘들어도 혼자 해결해 보는 것이 그동안 저의 삶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임무를 맡게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알게 모르게 전해졌던 많은 봉사와 헌신의 기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고 쉽게 답할 수 있었던 많은 부탁의 전화와 이메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왜 이런 직책이 주어졌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얻어야하는 lesson이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나 자신은 내려놓고 나의 것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혼자서만은 불가능하고 함께여야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년 내내 이 직책을 감당해 내면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터득해 보려 노력한 점이지만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는 확신이 안섭니다. 하지만 이런 계기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야기에 끝을 맺자면, 결국에는 친분이 있는 교우와 통화중에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에 여러분들이 자청하여 임원직들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임원의 선출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선교회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에게 이런 의미있는 기회를 주신 여선교회 회원여러분들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pg 11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온전한 삶,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 ‘내가 사랑하

는 이 땅의 모든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에”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지난 한해는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교회의 큰 행사들을 돕기위해 많은 여선교회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였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1. 9월 웨마의 밤(ECC Open House) 특별 기도회

때 Cake으로, 11월 21일 ECC 봉헌예배때 에스더 여선교회원들과 더불어 400여명을 위한 만찬으로 대접하였습니다.



2. **동북대회 연합선교대회**가 10월 16일, 뉴욕중앙장로교회에서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윤식 회장 (연변희망복지촌 회장)을 강사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듣고, 또 연변 탐방



을 하고 오신 여선교회원들의 기행소감, 2011년도 Mission Projects(북방사역) 등을 다루었는데, 희망복지촌 사역 외에도 두만강 지킴이 사역, 백두산 수양관 사역, 명동교회(회복)사역 및 병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총 40여명이 참석하였고 우리교회에서는 이성혜 사모, 홍도화집사, 김한나집사가 다녀왔습니다.

3. PPG(Presbyterian Partnership Group)NE모임이

10월 23일(토) Worcester First Presbyterian Church, MA에서 있었습니다.

주제: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강사: Ann Craine (The Congo Experience), Amy Porter(Haiti Mission)

특별활동으로는 Multicultural presentation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회의 사물놀이팀과 Cameron 교회성가팀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4. 12월 5일에는 **장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2010년도의 행사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고, 2011년도를 위한 신입 회장으로 고경아 집사를 인준하였습니다.

Sunflower Sunday School

이은주 집사

드디어 ECC 공사가 끝나고 9월 쉼의 밤을 시작으로 우리 Sunflower유년초등주일학교는 새로 지은 어린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식 예배당에 나란히 서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의 신나는 모습에서 선생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여러 우여곡절속

또한 ECC봉헌예배(11월 21일)를 시점으로 어린이 성전의 A/V system이 설치 되었고, 본당의 예배와 어린이 성전에서 예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향 및 조명 시스템도 어린이들이 더욱 활기차게 예배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꾸준히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20명이 넘는 교사진이 구성되어 모두들 열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직도 11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있지만 어린이들의 올바른 크리스찬 교육을 위해 반드시 제 시간에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1시에 오시면 학부모님께서도 여러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 마음고생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어린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섬세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Roots Program이 초기에는 혼동도 있었고, 11시에 시작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새 시간과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사진이 특별히 노력해서 준비한 Roots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예배와 성경공부 외에 여러 다양한 특별 찬양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믿음과 복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학부모 회의 및 Open House -10월31에 유년, 초등주일학교 학부모 회의 및 Open House가ECC 어린이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교사진 소개와 새로운 프로그램 및 교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부모 회장으로서는 이성숙 집사님이 지난 한해에 이어 계속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대강절

대강절(Advent) 은,
'움', '도착' 을 의미하는
'adventus'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리스도의 소심을 뜻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탄절 전의 네 주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우리 주님의 소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강절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겸손한 구주로 소신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고대하는 대강절은 기쁨과 빛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빛으로 소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대강절 기간 촛불 4개를 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소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다리며,
'희망', '평화', '사랑' 을 의미하는 3개의 보라색 촛불과
'기쁨' 을 의미하는 한개의 분홍색 촛불을 켵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 한주씩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는 주일에는 중앙에 놓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의 큰 초(Candle of Christ)를 켵니다.

또 다른 대강절 기간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대강절 화환(Christmas Wreath)을 마련하는 것인데,
동그란 모양과 상록수 장식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소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으며 절정에 이릅니다.

성탄절에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아름답고 밝은 빛으로 소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 하게 됩니다.

교우동정

1. 이재혁/서지원 :

집사님이 12월 11일에 결혼(뉴욕)하셨습니다.

2. 손영권/박미정 :

집사님이 11월 말에 한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3. 김성준/이선희 :

가정 San Diego로 이주하셨습니다.

4. 김길남 장로/김은숙 :

권사님님이 11월초에 한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광고

1. **교회 Landscaping**을 김길남장로, 신광성 집사님
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특히 새교육관 건물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는
'르호봇의 우물' 이 꾸며져 있습니다.

2. **상록회 새 임원진**- 회장: 주종대, 부회장: 장현숙,
총무: 이숙재

3. **Boston Globe**에 본교회 ECC 건물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http://goo.gl/JWkuI>

4. **중고등부 교사 모집**-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John Chung 전도사님
(중고등부)께 연락바랍니다

행사예고:

1. 12월 18일(토)에는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2. 12월 24일(금)에는 **성탄이브 축하예배**로 드리며,
유년,초등 유년주일학교의 성탄축하 공연과 1부
찬양대의 칸타타의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3. 12월 31일(금)은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 ECC 봉헌 및 5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보스톤 한인교회를 떠나 온지 벌써 16년
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룩한 보스톤 한인교
회 공동체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With joy,
이은주 목사 드림.

(*현재 PCUSA총회의 인종부와 여성 목회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새교우환영반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거의 매달,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는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성경공부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회 교단에 대해 배웁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녁 만찬을 갖습니다. 지난 9월 새교우 환영반의 새교우 가족은 이정규/김영미 장로님택에서 저녁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신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9월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새교우 가정은 **송동진/김보규, 허보식/조명희, 조훈성/리순아, 최정렬/최미남, 이해영/오민진, 이상석/박희성**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12월 19일에 마치는 11.12월 새교우 환영반의 새교우 가정은 **박경원/서정향, 김은성/이안휘, 오준석/황정제, 구윤지/최형태, 최안나/최학수, 이상필/김민경, 김영훈/오상남**입니다.

교육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님(617-962-2737)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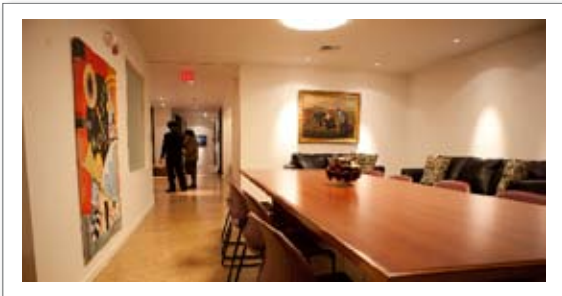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Shema night-9월



• Shema night-11월



• Ecc Openhouse



• ECC봉헌예배



• 제직임직식



• 수양회 뒤편이



Season's
Greetings

2010년 한 해 동안 한울타리를 애독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우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위원회 한울타리팀 드림